대구신문 2007년 02월 07일 003면

시·도선관위, 사이버 선거운동 단속

대구시·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UCC(사용자 제작 동영상) 등 사이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선거에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보고 6일 '선거 UCC 물에 관한 운용기준'을 밝히고, 기준에 위반할 경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도선관위는 특히 선거권이 없는 초·중·고생과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젊은 네티즌이 선거법을 몰라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구시교육청 등에 기준을 안내하고, 대학교나 유관기관·단체 등에도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또 이들 기관의 홈페이지에 팝업·배너를 게시하는 등 선거 UCC 물에 관한 운용기준의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선관위가 밝힌 선거 UCC 물의 주요 제한내용은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해 호의 또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나 비방 내용을 담아 게시·배포하는 행위, 홈페이지를 이용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이메일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김상섭기자